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처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는 말을 듣고는 3주간 자리만 지키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교육에 입했으나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할수록 생각은 완전 빗나갔으며 이는 안전교육의 결여에서 오는 무지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회사 또한 안전교육의 결여로 안전은 안전관리자 한 사람의 업무로만 생각되고 있어 사고의 예방은 물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안전사고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정, 품질, 원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이 시행된다면 안전의식의 고취 및 안전업무의 체계화로 안전관리에 틀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위탁교육과 자체교육,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열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교육에 참가시켜준 부서장님과 열의를 다하여 강의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영/경호건설 공무부 사원

우리 회사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현재까지는 기계설비공사란 특성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낮았고 또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하인 현장이 대부분이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취약하였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라 하면 현장내에서 현장소장이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가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식의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요 몇년 사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발주처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일면서 본사 차원에서 안전담당 부서를 신설하기에 이르렀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의 위탁교육이나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을 이수케 하는 등 상당한 경영자의 안전의식 바람이 불고 있다.

본인이 근무중인 현장은 비록 2건의 경상자가 발생하였으나 모두 함석운반이나 장비운반 등 약간만 안전의식을 가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본다.

따라서 안전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작은 재해가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의식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위탁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무재해 작업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일깨워 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양성과정중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곽상욱/삼영설비(주) 공사부 과장